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하나님의 선물

[성경본문]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말들이 가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한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려면 뛰어난 지능과 힘이 필요한데, 물질에게는 그런 지능과 힘이 없다. 세상에 생명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는 우주 만물, 즉 존재의 세계와 모든 생명체들의 세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만물과 생명 세계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셨음을 증거한다. 창조 전부터 계신 그는 영원하시다.

시편 90:2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창조자는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섭리자이시다. 섭리라는 말은 보존하고 관리 혹은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는 우리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신다.

다니엘 5:23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증거한다. 신명기 32:39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라고 말씀했다. 이사야 45:6-7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였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냥 혹은 우연히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며 본래는 더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다. 성경 맨 처음 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일곱 번이나 증거했고 일곱 번째는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증거했다(창 1:31).

그러나 죄가 들어왔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었다.

창세기 3:16-19는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

시니라”고 증거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죄로 인해 수고롭고 슬픔이 많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 되었다.

모세는 시편 90:10에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했다.

이사야 40:6-7은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고 말했다.

주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1:28).

바울은 로마서 3:10-18에서 “기룩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했다.

주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말한다. 하나님께는 외아들이 있으시다. 그는 요한복음 1:1에 “말씀이라고 불리는 자이셨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전통본문)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었다. 그것은 창조 이전부터의 관계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다.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본문의 표현은 그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포함하는 뜻이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성육신 成肉身)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다.

마태복음 1:18-20,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꿈에 나타나]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복음 1:32,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하는 뜻이라고 본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 유화제물-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죽음이며 그 죽음은 지옥 형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사함과 영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요한복음 5:24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마친다. 요한복음 3:16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장차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거기는 죄가 없고 불행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수고로움과 근심 걱정, 불안과 질병과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치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섭리자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세상이 그냥 우연히 옛날부터 존재하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며 지금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독생자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세상에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피조물 됨과 죄악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구주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복이다.

우리는 다 진정한 성탄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성탄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 주일오후설교 |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오

[창 43:1-5]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온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22년 전의 죄도 회개치 않았던 것 같다. 기근은 일반적으로 그 거민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나 기근 중에도 애굽에 양식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이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를 생각한다면 은혜 받을 여지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도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주신다. 시편 33:18-19,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리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욥기 38: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풍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마 6:26-33).

[6-10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물에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이[조목조목]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 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던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전에 요셉을 팔 때 앞장서서 제안했던 유다이지

만, 지금은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자신이 베냐민의 몸을 담보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많이 반성한 것 같다.

[11-14절] 그들의 아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樵子)와 파단행(巴旦杏)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책(差錯)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굶어죽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함께 보내어 양식을 구하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으나 그를 함께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야곱은 먼저 애굽의 그 통치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다. 그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 중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을 준비했다. 비자(樵子)는 견과들(nuts)을 가리키고 파단행은 편도(almond, 아몬드)들을 가리킨다. 야곱은 그 통치자를 위해 정성의 선물을 준비하였다.

또 야곱은 양식값을 두 배나 넣게 하였다. 지난번에 어떤 착오로 돈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돈 계산이 정확한 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이었다. 그것은 좋은 인격자이었다. 이런 요소는 장로와 집사의 한 자격요건이 된다(딤후 3:3[전통본문], 9).

야곱은 막내아들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받기를 소원하였다. 참 신앙은 사람들이나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주권적 처분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을 온전케 만들고 계셨다. 그는 이미 돈 계산이 정확한 도덕성이 있었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의지하게 하셨다. 그것이 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신

뜻이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신 뜻이었고 지금 남은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하시는 뜻이었다. 그는 베냐민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었다.

[15-34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 . . .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만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히우자 서로 이상히 여겼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치 않은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일 것이다. 그가 양식을 살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은 것을 보면 그들을 아주 미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형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그 동생 베냐민은 보고 싶었으나 자기를 판 형들은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가 형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그의 감정도 상당히 풀린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낫다. 그는 지금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너그러이 대하고 있고 함께 식사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했으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 땅에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들을 아시고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 곧 의식주의 문제로 얽려하지 말고 기근 중에도 오직 섭리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그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마 6:33).

둘째로, 야곱은 강제적으로지만 라헬도, 요셉도, 베냐민도 포기했다. 주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마 19:21) 또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4:33). 그것이 제자의 길이며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다. 우리는 야곱처럼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의 복된 나라만 소망해야 한다.

셋째로, 요셉은 원수같은 형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온전함이다. 주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44). 사도 바울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였다(엡 4:32).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